

Instant comment

[장중 시황] 과거 일일 8% 이상 지수가 빠졌을 때를 보자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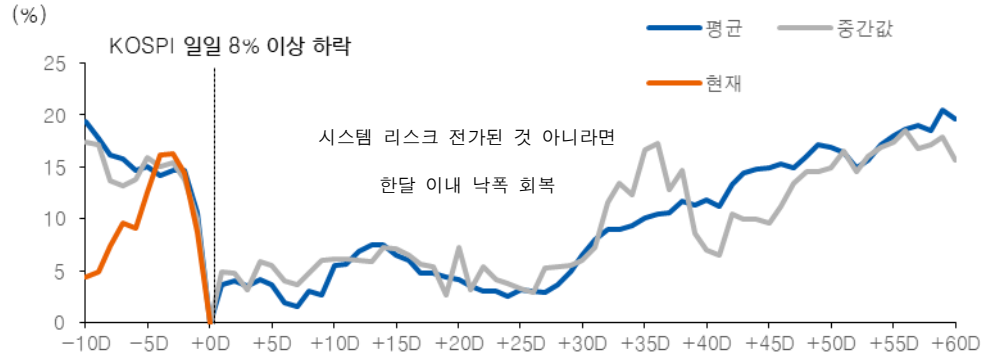
- KOSPI, KOSDAQ 장중 8% 이상 급락. 씨킷브레이커 및 매도 사이드카 발동. 미국 주식시장 급락 (S&P500 -2.6%, NASDAQ -4.8%,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0.3%). 금일 급락 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
- ① 고용보고서 : 5월 비농가고용 전월 대비 17.2만명 급증. 예상치(8.5만명) 대폭 상회. 실업률도 4.3%. 시장은 이를 금리 인상 우려로 연결(페드워치 기준 연내 금리 1회 인상 확률 46.7%, 2회 22.1%, 3회 3.4%). 그간 지수 상승 주도했던 반도체, AI 인프라, 소프트웨어 중심 차익실현 매물 출회
- ② 반도체 노이즈 : 브로드컴 가이드스 부진, 엔비디아 SOCAMM 용량 다운그레이드로 인한 메모리 탑재 감소 우려 등 반도체 노이즈 발생
- ③ 스페이스X 상장 : 이번주 금요일 스페이스X 상장 앞두고 글로벌 투자자 투자 대금 시서 차익실현 및 이동
- ④ 환율 변동성 : 원/달러 환율 1,550원 근처 등락. 외국인 자금 유입 어려운 환경 조성
- 금일 지수 8% 이상 급락 수준에서의 투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지양해야할 것으로 판단
- ① 고용보고서: 고용보고서 세부 지표 살펴봤을 때 이번주 개막하는 월드컵 수모로 인한 착시라는 판단. 고용 증가분에서 레저 및 숙박 크게 증가. 지방정부, 헬스케어 등 일부 부문에 집중. Good is Bad가 사실은 진짜 'Good' 인지에 대한 의구심
- ② 반도체 노이즈 : 역시 단기 노이즈라는 판단. 그간 많이 올랐기에 차익실현의 명분이 필요할 뿐. SO-CAMM 용량 하향 조정은 메모리 수요 둔화가 아니라 제한된 D램 공급으로 인함. 엔비디아 공급 총량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전망
- ③ 과거 투매 과다 시기 점검: 2000년 이후 일일 KOSPI 지수 8% 이상 낙폭은 총 7차례. 지수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시스템 리스크가 실물 경기 침체로 확산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크게 반등. 급락일 이후 10일, 30일, 90일 평균 수익률은 각각 5.5%, 6.5%, 15.3%. 현재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로 보긴 어려움

KOSPI 지수 급락일	당일 수익률	지수 급락 사유	10일 수익률	30일 수익률	90일 수익률
2000-04-17	-11.6	IT 버블 붕괴	6.1	4.3	3.3
2000-09-18	-8.1	포드 대우차 인수 포기·유가 급등	2.0	-11.6	5.2
2001-09-12	-12.0	9·11 테러 충격	-0.6	14.1	46.6
2008-10-16	-9.4	글로벌 금융위기	-11.2	-13.2	-14.0
2020-03-19	-10.6	코로나 유행성 패닉	16.8	28.0	44.0
2024-08-05	-8.4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9.9	6.0	1.7
2026-03-04	-8.8	미국·이란 전쟁 확산 우려	15.1	17.9	27.3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Instant comment

KOSPI 8% 이상 지수 급락 이후 KOSPI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전략) 6월 FOMC 전까지 고용 서프라이즈발 금리 발작과 스페이스X 청약 수급이 겹친 단기 충격 악재는 시장 하방 압력으로 작용 가능할 전망이다. 이번주 소비자물가 역시 시장 우려 요인. 다만 반도체 포함 호실적주 이익 주도력 여전히 강력하고, 노이즈도 단기 차익실현 명분에 불과하다는 판단 내려진 현 상황에서 금융, 증권, 화장품, 유통 등 경기 방어 내수/가치주 역시 낙폭 과대 구간 도달. 과거 지수 8% 이상 급락 이후 주가 V자 반등 사례들 고려시 투매보다는 관망율, 관망 이후엔 반도체 포함 낙폭 과대 실적주 비중 확대의 시기로 삼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 장중 저가 7,442pt(-8.8%)는 KOSPI 12개월 선행 PER 7.1배에 불과한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장중 주가 역시 30만원, 200만원선에서 굳건하게 지지받는 상황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